

### 전주시, 사회혁신 전진기지 명성 높인다

# 혁신 주체 협력 증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온 힘'

전주시는, 다양한 사회혁신 주체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에 힘쓰기로 했다.

시는 전국에 최초로 조성되는 사회혁신의 전반을 이끌어갈 사회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주민주도 생활실현(리빙랩 프로젝트), 사회혁신 주제 네트워크 구축, 혁신가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누구나 지역사회 의제에 접하고 문제해결에 도전하는 한편, 사회혁신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확산하기 위해 저명한 연사들을 초청해 혁신이카데미를 운영하고 전국 단위 사회혁신 행사 개최를 통해 명실공히 사회혁신 전진기지로써 전주시의 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협력과 포용'의 전주형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시는 협력·포용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436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로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먼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자활사업단 운영(16명), 사회적경제분야 전문 강사 양성(50명) 등 청년 80여명의 사회적경제분야 일자리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5여의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함께 기업성장을 지원, 우선구매 및 온·오프라인 플랫폼인 '전주집행' 활성화, 청년서포터즈 운영, 경영·마케팅·회계·노무 등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청년 자활사업단 운영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지원**

**지역 내 공동체 연대 활성화**

**지역 주도 도시재생 실현 매진**

**▲주민 중심의 풀뿌리 공동체 활성화**

시는 지역조직인 온두레 공동체의 도약을 위한 온두레 공동체 2.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지역과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조성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300여개 공동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총회, 공동체 간 네트워크사업, 선정, 미선정 공동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 지역 내 공동체들의 연대 활동을 활성화 한다. 나아가, 공동체 활동가, 청년 활동가 등 공동체 지원 인력 양성으로 공동체 확산의 시

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동체 야호시장을 개설·운영해 시민들의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간다.

이 밖에, 중앙동 등 원도심 12개동의 공동체 복원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 수립사업'이 2015년을 시작으로 올해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되는 만큼 성공모델의 홍보와 확산으로 자치실현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마을계획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국비공모사업 등과 연계해나갈 계획이다.

**▲주민, 지역 주도 전주형 도시재생 실현**

시는 ▲주민참여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람 우선의 시민생활 기반 강화를 목표로 주민, 지역 주도 전주형 도시재생을 실현하는데도 매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재생대학과 도시재생 포럼·세미나를 확대 추진하고 시민 참여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도시재생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팔복·승암 새마을마를 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함으로써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산미촌의 점진적 기능전환을 위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전주역역권 혁신성장 르네상스(중심시가지형) ▲용머리 남쪽 빛나는 여의마을(우리동네살리기) ▲서화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창조적 전주형 도시재생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송효철 기자

##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성장기

### 전주시 '2018 그레도 관참은 꿈드림' 발간

전주지역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성장기를 담은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보고서 '2018 그레도 관참은 꿈드림'이 발간됐다.

이번 발간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기획한 첫 번째 운영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꿈드림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총 6,934건에 달하는 상담 및 교육 등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490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중 137명이 상급학교 진학과 검정고시 합격 등으로 학업에 복귀했다. 91명은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등으로 사회진입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 운영기관인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2018년 운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센터는 지난해 '청소년의 생명을 살리고 삶의 주체로 세우는 최상의 상담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총 2만622건의 상담과 6만118건의 사업실적으로 총 8만1874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담실적의 경우, 갈수록 청소년수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질



적인 사례 관리로 2017년 상담실적 1만 8853건 보다 9.4% 증가했다.

특히, 센터는 2018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1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2018 전국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2년 연속 장려상 수상 ▲2018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우수사례 여성가족부장관상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상 2관왕 수상, ▲2018 전국청소년상담복지사업 시상식에서 최우수1388청소년지원단(공천요리제빵이용직업전문학교) 여성가족부장관상 등의 결실을 거뒀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018년 운영보고서가 나란히 발간되어 기쁘다"며,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제작한 운영보고서를 통해 꿈드림 및 청소년 상담 전반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꿈드림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또는 전화(063-227-1005)로 신청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동파된 계량기 정리  
연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자 계량기 동파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16일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직원들이 동파된 계량기를 정리하고 있다.

## 민주당, '목포 건물 투기' 손해원 '재판 청탁' 서영교 진상조사 착수

**문화관광위 간사직·원내수석부대표직은 일단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재판 청탁'과 '목포 건물 투기' 의혹에 휘말린 서영교·손혜원 의원에 대해 조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단 서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과 손 의원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 사보임에 대해서는 유보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의 논란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사무처에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아까 지시를 했다"고 했다. 서 의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언론에 난 것 밖에 내가 잘 몰라서 파악을 해보라고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손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무처에서 파악을 해보고 나서..."라고 말을 아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사무처를 꾸려서 조사할 것이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서영교(의원) 수석직과 손혜원(의원) 상임위 간사직은 아직 나온 것이 없으니 나오라고 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당 차원에서 빨리 할 것"이라며 "조사가 오래 걸리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본인 소명도 듣고, 필요한 것은 관련된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는 대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놓고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두 의원의 수석 및 간사직 유지 방침도 확인했다. 그는 "(계속 수행) 하려고 한다"며 "(조사)가 길지 않을 것이라 신속하게 판단해서 지도부에서 어떤 결정이 필요하지 하기로 했으니 그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 의원의 논란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어제 보도 보고 알았다"고 했다. 손 의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도 "없다. 아침에 라디오에서 밖에 못 들었다"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윤호중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의 경우 결정된 것은 없다"며 서영교(의원) 수석직과 손혜원(의원) 상임위 간사직은 아직 나온 것이 없으니 나오라고 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탐장·합동 3차검정사)은 전날 임종현 전

## '시민 행복을 위한 주민자치 실현에 앞장'

### 임정용 신임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취임

임정용 전주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49)이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49)으로 취임했다.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1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35개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초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이 취임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제14대 이석문 회장(삼천2동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퇴임하고, 제15대 임정용 회장이 취임했다.

협의회는 이·취임식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제15대 임원진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2019년도 활동에 돌입했다.

임정용 신임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뛰어주신 이석



문 전임 회장과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과 함께하며 전주를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35개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는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주민들의 자치활동 강화와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3월 31일까지

###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주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부실신고자 △복지부HUB시스템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등이다.

시는 통장과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전 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고,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노상목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정확한 사실조사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상습 차탈탈이 20대 붙잡혀

상습적으로 차탈에서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모씨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최근까지 17회에 걸쳐 차탈에서 명품시계, 다이어리 반지 등 총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지난 15일 오전 10시경 완산구 B길에서 A모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모씨는 지난 2017년 10월에 출소에 10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모씨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석훈 기자

## 익산시 금품 훔친 50대 검거

익산경찰서는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모씨(55)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모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익산시 B병원 1층 현금인출기 위에 C모씨(58)가 놓고 간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4시 20분경 피의자 자택 앞에서 A모씨를 검거했다. /김석훈 기자

## 효자5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동장 이상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문수)는 지난 15일 효자5동 주민센터에서 가해된 첫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가졌다.

협의체는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위원 위촉 및 인사, 동네복지사업 추진상황 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동네복지 CMS 정기기부 사업 홍보, 민간협력 배분사업 지원대상자 심의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2019년 가해된 다가오는 설을 맞아 명절선물 지원을 계획했다. /송효철 기자